

# 자동차·타이어·가전 먹구름 걷어내고 새 도약 일궈내야

새해 광주·전남 경제는 지루한 경기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빠져나와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만만치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 환경은 개선과 악화 사이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게 경제계 일반적 시각이다.

현재의 국내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으로, 앞으로 경기 국면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대로라면 지역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언제 걷힐지 짐작하기 어려워 저성장·경기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산업계 주력 업종별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비롯한 기상도를 살펴봤다.

**관세폭탄 부과면 기아차 수출 접을 수도...생산량 감소 불가피**  
**금호타이어 물량 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 공장 가동률 80% 전망**  
**석유화학 여수산단·포스코 잇단 대규모 설비 투자로 활력 기대**  
**백색가전 정부 '공기산업' 육성예 희망...부동산 시장 한파 예고**

**자동차** 올해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시장의 최대 변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먹구름이 언제 걷히는 지 여부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한 이후 최근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된 의견을 조사하는 등 '관세 폭탄'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고율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쏘울과 스포티지를 미국에 수출해오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수출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미국 수출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미국 수출 물량이 대부분인 쏘울의 경우 신형 쏘울 부스터 판매와 맞물리면서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량(49만2233대)의 37.3%인 18만3959대를 미국으로 수출했고 쏘울 수출물량은 10만9625대, 스포티지는 7만4334대에 달했다. 현대기아차 전체적으로도 지난 2017년 59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율 관세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경기침체로 생산·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최근 열린 포럼에서 '2019년 자동차산업 전망'과 관련, 올해 국내 자동차 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도 경기 부진에 따라 179만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전체 국내 자동차 판매량(181만대 예측)보다 감소한 것으로,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감안한 분석이다. 세계 시장도 미국과 유럽, 중국 등 3대 시장의 부진으로 전년도에 견줘 0.1%만 증가하는 등 정체기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9% 감소한 41만4667대에 머물렀다. 전망대로라면 올해도 감소세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광주공장은 '신차' 특수로 내수 침체를 넘어서겠다는 기대다.

쏘울 부스터가 본격 출시되고 단종된 카렌스 후속으로 신형 소형 SUV가 선을 보이면 생산 확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장 부진에도 친환경차는 급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기차 개발·판매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타이어** 주력 산업인 타이어 수출 기상은 '흐림'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타이어 수출액은 5억1500만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15.7%나 줄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자동차 수출액도 4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나 감소했다. 지역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만한 수준이다.

올해 현실도 녹록치 않다. 우선, 주력 타이어업체인 금호타이어는 올해도 영업오더(주문) 축소로 인한 공장 휴무를 최소 44일(광주공장)-최대 101일(평택)까지 해야한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한 바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불투명한 대외 환경 등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금호타이어는 올해 신차용 타이어 물량이 18%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공장 가동률도 79% 수준에 머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유류인력 발생에 따른 공장 휴무 문제 등 노조와 풀어야 할 단체협상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식인 대표이사에 산업은행 출신 인사가 내정되면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자동차 차체와 프레임 제작 분야 특허 10건을 보유한 기아차 협력업체 호원 직원들이 '쏘울 부스터' 차체를 들고 새해 카메라 앞에 섰다. 올해 본격 출시하는 기아차의 '쏘울 부스터'가 과거 쏘울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지역 경제의 미래와 희망을 밝혀줬으면 하는 것, 이들 모두의 바람이다. /최현배 기자 choi@



금호타이어는 올해 영업오더(주문) 축소와 자동차 시장 침체의 위기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일궈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타이어를 검사하고 있는 직원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석유화학** 전남의 대표산업인 석유화학·정제 업종은 긍정적 지표가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석유제품 수출액은 지난 3분기까지 34억8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6% 늘었고 철강관 수출액도 3.8% 증가했다. 올해도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어지거나 예상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S칼텍스의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2조6000억원 규모의 올레핀 생산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 LG화학도 2021년까지 2조6000억원을 들여 NCC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포스코도 2020년까지 5700억원을 들여 연산 4만 t 규모의 2차전지 양극재 제조시설 투자를 진

행중이며 8000억원 규모의 시설 합리화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북미 천연가스 기반 화학설비(ECC) 신·증설 등 공급 증가 요인이 맞물리면서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지난해 급등했던 광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멈출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27일 내놓은 '2019 KB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 112명에게 설문한 결과, 올해 전국 주

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70.5%로 집계됐다.

하락 폭은 1~3%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31.3%로 가장 많았고 낙폭 3~5%를 예상하는 비중도 17.0%에 달했다.

지역별로도 비수도권 주택시장 하락을 점친 응답이 87.5%에 달했다. 이 가운데서도 5%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19.6%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올 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주택 매매값이 전년보다 1.1%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자고 나면 1~2억이 올랐던 지난해와 달리, 내릴 때는 '찜뎀'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거래량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내년도 주택매매 거래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64.3%로 집계됐다.

당장,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달동안 신고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2348건이었다. 이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1907건으로 18.78% 줄어든데다, 11월 14일부터 지난달 13일에는 절반이 넘는 848건(55.53%)으로 급락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한달 전(8월14일~9월13일) 거래량(3104건)과 비교하면 무려 72.78%나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광주지역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광주에만 지난해(6680가구)보다 9271가구 늘어난 1만5951가구가 새로 공급되고 전남에도 4265가구의 분양이 예정되는 등 올해 신규 공급물량이 2만2167가구에 이르는 점도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aT가 국민과 함께

### 우리농업의 희망으로!

농민의 손에는 새로운 희망을  
국민의 식탁에는 행복한 건강을

농식품 수급안정

식품산업육성

농식품 수출진흥

농식품 유통개선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